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바이오환경 에너지학과교수

1978년은 미국에서 환경역사상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매립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된 러브캐널(Love Canal) 사고가 발생한 해이다. 그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불법적인 매립과 수출 등이 근절되고, 각국의 환경 관련법들이 정비됐던 상징적인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경북 칠곡에 위치한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서 고엽제가 포함된 다량의 유해물질들이 매립시켰다는 사실은 '제2의 러브 캐널', 또는 '한국의 러브캐널 사고'라고 부를 수 있는 반환경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미군기지내에서 야기된 크고 작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이유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터부시되고, 묻혀져 왔다. 미군기지내에서 발생된 환경오염문제는 주로 유해물질과 유류로 인한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문제 등이다. 유류나 유해물질로 인한 토양이나 지하수오염이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독성과 악영향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염된 지역의 토양이나 지하수가 수십 년 이상 장기간 동안 잔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더욱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비밀로 덮여 있다가 이번처럼 근무했던 미군에 의한 양심선언이 없었던다면, 오랫동안 자연생태계와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캠프 캐롤에서 발생한 고엽제 문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첫째는 고엽제라는 인류가 개발한 가장 강력한 유해물질 중 하나가 국내에서도 사용됨으로

써 이로 인한 환경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그동안 쉬쉬했던 미군기지내 환경오염문제가 다시 공론화됐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환경에 대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맹국으로서 불평등조약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 등에 대한 적절한 개정작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됐다. 넷째, 양국 정부간의 타협과 합의가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자료들을 철저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된 이후, 적절한 복원 및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1세기 한국의 국격(國格)과 세계국가로서의 미국의 국격에 맞는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현재 문제가 된 캠프 캐롤과 반환된 마켓지지만만이 아니라, 이미 반환된 기지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지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및 사후 환경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거해 오염의 직접적

인 원인자인 미군당국은 철저한 조사에 따른 복원 및 보상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미국과 한국의 환경 관련법과 제도의 수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도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맹국이라 하면서 자국의 기준과는 다른 불평등조약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한 양국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미군측에서 유해성을 알고 도 폐기시켰다면, 그보다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일도 없다. 실록 모르고 매립하였다하더라도 이제는 미국이라는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조치들(철저한 조사와 복원, 보상 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공동조사가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기지만이 아니라, 이미 반환된 기지들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국가적 품격과 책임감을 갖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대응해주시기를 기대한다.

社說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6월 6일은 현충일(顯忠日)이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다. 호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다한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 무명의 고통을 벗기는 날이다. 나라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나타내고 우러르는 날이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의 열강 속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히 변명을 누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던가. 나라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버리고 피와 땀을 흘린 이들이 있었다. 이들의 가족이 흘린 눈물과 한숨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가능했다.

1700여 년 만만이 이어져 온 불교가 우리 민족의 삶에서 박리 될 수 없는 까닭은, 외침에 맞서 목탁과 죽비 대신 창·칼을 들어야 했던 승병에만 있지 않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의식에는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와 민족문화수호운동의 당위성이 담겨 있다.

현충일은 '호국'으로 대한민국의 과거가 현재로 이어져 미래를 그리는 날이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울타리 안의 공동운명체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체득·실천하는 날이다. 적어도 이 날 하루만큼은 은혜를 잊지 않는 날, 감사하는 날, 보답하는 날이어야 한다.

<금강경>에서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 했다. 어느 때 어느 마음도 얻을 수 없다지만 적어도 현충일,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점찍는 날이어야 한다. 호국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역사 왜곡' 가르쳐선 안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조직위원회가 6월 18-20일 국민대통합을 기원하는 대장경 이운행렬을 개최한다. 2011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D-day 100일 행사이다.

이에 대해 강와 선원사 등은 "대장경 이운행렬은 역사왜곡"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운 코스에 강화 선원사가 포함돼야 한다. 조직위가 이운행렬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가 일방적으로 공문 내용을 취소했다"며 내놓은 "해인사 장경각에 봉안한 대장경은 재조대장경으로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과는 무관하다"는 폭로(?)까지도 틀린 말 하나 없다.

선원사 측이 반발하자 조직위는 "이운행렬은 역사적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축전의 흥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초조대장경과 해인사에 봉안된 재조 팔만대장경은 엄연히 다르지만 둘 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그것이고, 소중한 우리 문화재이다. 둘 중 어느 것이 올해 천년을 맞았는지 시비·우열을 가리는 것은 부질없다.

역사를 왜곡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많은 학생들이 역사를 국가 교과서 대신 TV 사극 등에서 배우는 요즘이다. 이들이 대장경 천년의 경이로움을 느끼기에 앞서 800여 년을 1000년이라 부를 수 있는 굴절된 유통성부터 배운다면 어찌할까. 시대가 아무리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만드는 [溫故創新] 시대라지만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변칙을 가르쳐서는 안된다. 불교계와 조직위는 이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사부대중 칼럼



지장 스님 초의명상선원 대표

본격적으로 차명상을 시작한지 6년의 시간이 흘렀다. 6년이라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변화의 시간이었다. 여차피 세상과 우리 자신은 가만히 있어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차명상이라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나름 어떤 계기가 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던 것 같다. 그 답을 얻기 위해 수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출가 수행자라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사실 수행의 길은 깨어 있는 삶의 과정이어야 한다.

어느 순간 방향이라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봉착하게 되고 말았다. 막연하게 동경해왔던 이상적 삶과 나의 현실적 삶과의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자 답답함과 불안, 막막함 등이 뒤따라온 것이다. 그 방향의 눈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정신 차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나 자신이 크게 변화하지 못하고 제자

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나이는 먹어가고 경력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인격의 변화, 인성의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겉은 그럴싸하게 나이나 세상 경력에 걸맞게 꾸며지고 습관 들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속의 정신 상태는 살아온 시간에 비례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 사람마다 그 우선순위는 다 다를 것이다.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우선일 수도 있고 승진이나 출세가 우선일 수도 있고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우선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아마도 행복 혹은 만족감을 가져오는 요소일 것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 자신의 경우 방향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외형적인 활동이나 업적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즉 실질적인 인격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허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인격의 변화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변화의 내용이다. 삶의 목표이면서 동시에 행복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인 것이다.

인격의 변화라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격을 유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그 원리와 방법을 찾게 되었다. 전에 공부해왔던 것을 다시 기초부터 착실히 더듬어 보기도 했고, 다른 종교나 명상 혹은 자기변화 프로그램 등을 눈여겨보기도 했다. 인격의 변화라는 모토를 가지고 공부하니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보지 못했던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무언가 서서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보다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고 싶어 외국의 수행센터에도 가서 살아보았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원리를 통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 대략적으로나마 그 핵심을 알게 되었다. 알고 나니 그것은 평소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 가까이 있었던 것이었지만 단지 그 의미나 실천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원리를 실천하게 하는 전라와 방법이 있어야 하고 다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만 '유익한 변화'는 현실화 될 수 있다.

나름 유익한 변화의 원리를 현대적인 콘셉트로 실천하고자 차명상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다. 막상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예상과는 달랐다. 흥분

히 준비가 안 된 탓도 있었지만 주위의 격정과 실망스런 시선들이 가는 길을 더욱 힘들게 느껴지게 만들었다. 그때 법산 스님이 떠올랐다. 오디오 불교 대장경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고 열심히 활동하셨던 스님은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원적에 들었다. 앞에서 그 스님 일을 잠시 도와 드린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로 힘들어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된다. 하지만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본인의 일에 열정을 쏟는 장면을 떠올리면 고단함에 빠져 있는 나의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곤 했다. 아마도 지금 시대에 그 일을 하셨다면 고생하지 않고 뜻을 성취하실 수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개척해 나갈 때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시련과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런 시련을 극복하고 본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아직 시련의 길이 끝나지 않는 나로서는 시련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예전 이와 같은 번민과 고민을 했을 법한 스님의 심정이 뻘뻘 끊이 나 꺼질 수밖에 없다. 지금 옆에 계시다면 참으로 할 말이 많은데... 오늘도 그리움을 차와 함께 우려 마시면서 할 말을 대신해 본다.

오디오 대장경 원력 세웠던 스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일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대주지사: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062)384-3009 영주지사: (054)634-3429
전북지사: (063)910-8977 부산지사: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관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한,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5-37번지 성화미술원 공방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뒤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장애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이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